'디지털 물류 기술' 도입

익산시, 지역 농산물 물류 서비스 품질향상… 스마트 도시 전환·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도시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입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난다.

특히 올해는 교통과 물류 분야에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올해 국토부의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이어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에 잇달아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선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교통 분야에 스마트 솔루션 시스템을 구축해 도심 외곽 지역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확대한다.

시는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DRT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

수요응답형 버스(DRT)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DRT 노선을 구축해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플랫폼이 구축되면 차량 위치와 최적 노선 정보, 탑승 승객 정보제공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플랫폼을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 농산물 물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디지털 물류 기술'을 도입한다.

시는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선정으로 국비 5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마을전자상거래 입점 농가와 올해 7월 준공 예정인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수집 물류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농가가 택배 상품을 예약하면 수집 기사가 해당 시간에 맞춰 수거해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에 집하하고 집하된 상품은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 속도낸다

군산시·신영대 국회의원·전북대병원, 공동주관 세미나 개최

군산시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군산시와 신영대 국회의원, 전북대학교병원 공동주관으로 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동시에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현재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심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각종 중증환자, 특히 심·뇌혈관계 응급환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질환 등 시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직결되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 전문가 주제발표를 비롯해 병원 건립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1부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전북대학교병원장 등의 인사말과 군산전북대병원건립단장의 군산병원 사업계획 및 진행경과 등 순으로 성공적인 병원건립을 위한 비전과 계획을 공유했다.

2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나서서 ▲국내 병원 건축 패러다임 변화, ▲새병원 이야기(세종충남대학교병원 사례), ▲의료환경의 변화와 기회, ▲디지털 기반 미래병원, ▲군산의료사와 상생의 길에 대한 주제발표로 마무리됐으며, 향후 주민대상 설문조사와 컨퍼런스를 진행해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사업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강 시장은 "전북대학교 병원은 전북도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발전을 선도해온 지역거점병원으로 그동안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제는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으로 새만금과 충남지역까지 아우르는 서해안 광역거점병원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의회-군산대,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역과 상생하는 교육혁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과 대학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영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군산대학교 이장호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정동원 기획처장 외 3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의원들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군산대학교 혁신비전 'ICC 기반 특성화 대학부제 운영' 및 '지역-대학 상생을 위한 대학 주요 공모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의회와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 유기적인 협력체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시의회와 군산대학교가 지속적으로 교류해나가 서로의 역량발전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대학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산시 집행부와 군산시의회, 지역대학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군산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로운 노인일자리 모델 정립

군산시-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업무협약

군산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일자리 확대와 지역상생 도모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신규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 시니어서포터즈 사업'의 각 기관별 역할을 분담했다.

'농업기술센터 시니어서포터즈 사업'은 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추진되며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농기계 임대 관련 민원안내 및 군산비어포트 수제맥주 생산시설 위생관리 등 업무에 참여하고 지역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기술센터 신규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어르신들 일자리가 단순 공익활동만이 아닌 군산시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 모델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주민과의 대화 취소… 코로나 대응 집중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 전격 취소한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정운영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시민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시정에 반영하는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왔다.

하지만 2월 평균 700명대였던 확진자가 3월을 기점으로 1,000명을 넘어서며 시민의 안전과 방역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수시로 변경되고 재택치료가 급증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게시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주민과의 대화를 기다려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염 예방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취소 결정인 만큼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익산=이득훈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역 소식통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군산시는 오는 31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3개 점검반을 가동해 신고, 의심 가맹점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며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중에 따라 현지 지도,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지자체합동평가 대응 1:1 소통의 장 마련

군산시는 '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1:1 소통의 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1:1 소통의 장은 각 담당자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과 목푯값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전략 방안을 토의했다. 2022년 신규지표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을 함께 고심하고 부서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며 초기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를 위해 전 부서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매월 추진 상황 보고회 개최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부진지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등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량평가의 목푯값이 미정이거나 과다 설정된 지표에 대해서 시 실정에 맞게 개선되도록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